

지리학자의 공공직 참여에 관한 연구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주* · 권용우**

A Study on Geographers' Participation in the Pubic Sector : A Case of French Geographers

Hyeonjoo LEE* · Yongwoo Kwon**

요약 : 우리나라에서 지리학전공자들의 사회진출 영역이 한정되어 고용시장의 적체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에 지리학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지리학계의 사례를 통하여 지리학자의 공공직 진출의 가능성을 논의코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리학은 고대부터 사상들의 분포관계와 지역특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치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영토의 확장과 관리를 위한 지역연구의 활용이 활발하여 유럽 국가들에서는 지리학자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였다. 한국에서도 최근 여러 차원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지리학계는 지리적 시각과 접근방법의 특성이 지리학자들의 공공직 진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 환경, 부문적 경제, 관광개발, 국제정치 분야 등이 지리학자들이 진출하기에 적절한 공공직 분야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한국지리학계가 사회과학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지리학 특정분야의 전문지식 획득과 동시에 지리학 전반의 고른 지식을 배양하는 것이 공공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지리학 활동영역 확대, 지리학자의 사회참여, 공공직 진출, 응용지리

Abstract : It is generally found that geography majors' progression in society has a very limited scope in Korea and this is one of the causes of lessening geographers' job market. As an attempt to draw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is paper, by a close examination of the French case, tries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geographer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ector. Geographers'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has long history. They acted as providers of geographical knowledge on human and physical features of the world and also as counsellors for effective administration and politics. French geographers evaluate that it is the characteristics of geography that enable geographers to progress into the public sector. They also perceive that such fields as regional development, environment, economy, tourism, international politics are possible ones for geographers. Some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is case study to extend geographer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ector in Korea; it is required to sustain open mind to every field of social sciences, to improve specialized as well as generalized knowledge on geographical features, and to provide practical knowledge on spatial analysis and management.

Key Words : extension of geographers' activity space, geographers' social participation,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ector, applied geography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지리학과가 신설되어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 지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이 대학에서 연마한 지리학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교육계와 연구직으로의 진출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분야의 고용기회는

* 국토정책위원회 전문의원 (Expert, National Territory Policy Committee), lhjpeal@yahoo.co.kr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Professeu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ykwon@sungshin.ac.kr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있어 매년 배출되는 지리학 학위자의 수요를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획득한 고급인력들의 취업시장은 더욱 열악하여 고급 전문교육을 받은 지리학 인재들의 적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계만으로는 지리학 전공자들의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리학계 전반에 확산되면서 한국지리학회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하여 향후 지리학의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리학자들의 공공적으론 진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의 고찰을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프랑스의 사례는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내용을 참고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리사적 연구 전통에서 지리학자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지리철학적 분석이 이루어 진바가 전무하므로 지리사적인 흐름 중에서 지리학자들의 개인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본 논의를 이끌어간다. 연구내용은 지리학자의 사회참여에 관한 흐름을 조감해 본 후에 프랑스 지리학 전공자의 사회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지리학회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논의의 진행은 첫째 지리학의 시대적 역할과 관련하여 국가에 지리적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학자들의 활동을 고대부터 근대까지 나라별로 고찰해보고 둘째 지리적 사상을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1960/70년 이후의 지리학자들의 사회참여를 분석한다. 셋째 현대의 지리학의 사회참여를 프랑스 지리학계라는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현상을 살펴본다. 이때 공공자로서의 지리학적 저변을 또 한번 확대시킬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여 프랑스 학계는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어떠한 측면에서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와 더불어 사회참여하는 지리학자들의 자세를 논의하여 지리학자가 사회참여자로서 올바른 역할을 담당하는 태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지리학자와 사회참여

1) 사회참여의 흐름

기원전후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에라토스테네스(Eratosthenes)는 지리학자이면서 박물학자였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수집된 수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분석해, 그 당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 국가에 지리학의 의미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인식시킨 인물이라고 평가된다.

1492년 콜럼부스(Columbus)에 의해 지리상의 대발견이 이루어진 후 1911년 아문젠(Amunson)이 남극을 정복하기까지 약 400여 년간에 걸쳐 수많은 탐험가와 지리학자들에 의해 지구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지리학은 근대적 학문으로 도약하여 탐스러운 과실을 맺을 수 있는 풍부한 토양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얻게 됨으로써 확고부동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신비의 껍질을 벗어버린 지구'는 보다 뛰어난 지리학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통찰되고 이론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처지에 이르른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지구연구에 대한 새로운 학문의 출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정확히 간파한 인물이 곧 근대지리학의 아버지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였다. 그는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과 새로운 학문수립에 대한 불같은 정열로 충만한 채 평생을 근대지리학 수립에 헌신하였다. 훔볼트는 1827년에 프러시아(Prussia) 왕의 시종관(chamberlain)으로 임명되어 베를린에 정착하여 근대지리학자의 공공적 참여의 문을 연 인물이 되었다. 1829년에는 러시아의 짜르(Tsar)의 요청으로 시베리아에서 광물자원을 탐사하는 공공직을 수행하였다(James and Martin, 1981; Dickinson, 1969).

독일 지리학자 페셀(Peschel)은 1849년부터 1853년까지 Augsburg에서 발간되는「Allgemeine Zeitung」의 부발행인으로 활약하는 한편, 1854년에서 1870년의 기간에는 외국문제를 다루는「Ausland」의 발행인으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초기의 독일 지리학자 노만(Neumann)

은 1848년 유럽을 휩쓴 '1848년의 노동혁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강사직에서 해고되었으나, 그 후 Breslau대학에 교수로 취임하여 지리학을 연구한 인물이다. 베를린 대학 지리학교수로 활동했던 리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은 대표적인 사회참여 지리학자였다. 그는 1860년부터 1862년까지의 기간동안에 프러시아 통상친선사절단에 참가하여 중국, 일본, 삼(타이)을 두루 여행하였다. (Dickinson, 1969) 그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는 독일계 신문의 통신원으로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중국, 일본 등지를 다니면서 지질구조, 지형, 광산자원, 조사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특히 1868년부터 4년간에 걸쳐 캘리포니아은행, 상해상무성 등의 재정적 지원을 얻어 행한 중국의 경제상태 조사활동은 리히트호펜에게 큰 의미를 주는 활동이었다. 그는 중국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역저 「중국(China)」을 간행해 독일 정부가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를 제공했다. 실제로 리히트호펜은 그 당시 독일이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에만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아시아에는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에 극동지역에 독일 식민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중국 북부의 관문으로서의 교주만(膠州灣)에 독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기야 독일은 교주만 지역에 대한 99년간의 조차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독일정부는 독일 해군의 팽창과 바다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리히트호펜에게 해양문제연구소를 창설토록 위촉하였으나, 해양박물관을 개관하기 전에 사망했다. 이외에 정치지리학자 라첼(Ratzel)은 1870년대 쾰른신문의 여행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유럽, 미국, 멕시코, 쿠바 등에 관한 여행기, 작품, 각지의 지리상 등의 내용을 기고했던 기자로 활약하였으며 지형학자 펄크(Penck)는 대학, 정부, 재계의 1인자들로 구성된 수요협회(Mittwochsgesellschaft)의 관방장(Kanzler)을 맡아 일함으로써 지리학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연구지평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프랑스의 경우 일찍부터 지리학자들이 사회문제를 다루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다. 1890년대에 지도는 국토와 지역 문제를 다루는 부문에서 중요하게 활용되었으며 보슈(Bauche)는 왕의 시종지도학

자로 활약했다. 지그프리트(Siegfried)는 1800년대 후반에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다가 Collège de France에서 정치지리학을 강의했다(Dickinson, 1969).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논리적 기초를 제공했던 식민지리학 강좌가 대학에서 강의되었으며 뒤부와(Dubois) 등이 주도하였다. 프랑스 지리학의 창건자인 비달 드 라 블라슈(Vidal de la Blache)는 1891년에 식민지리학자 뒤부와와 함께 「지리학연보」를 창간하였다(권용우, 안영진, 2001). 비달은 지리학이 지역의 생활양식(genre de vie)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양식의 논거를 제시해 지리학자들이 지역활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 비달의 제자인 마르톤느(Martonne)와 드망중(Demangeon)은 1900년대 초기에 자연 및 인문 현상에 관계된 지역문제 내지 사회 문제에 관해 활발히 논리를 개진하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조르주(George)는 「Que sais - je?」와 「Magellan」문고판을 통하여 지리학의 대중화를 시도해 많은 저작물을 냈다. 그는 인문지리학, 경제지리학, 사회지리학 등의 지리학의 각 분야에서부터 도시문제, 촌락문제 등 주제별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지리학적 관점에서 다루어 사회활동의 영역을 넓혔다. 1966년에는 「사회학과 지리학」을 간행하여 인간사회에서의 지리학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였다. 2차 대전 이후 고트만(Gottmann)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경제개발 계획에 참여하여 크게 공헌했다. 그는 1950년 이후 도시성장과 지역경제 문제에 심취해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리학의 사회적 활용은 마르톤느와 드망중 등에서부터 유래되나, 지리학자의 사회참여 활동은 전후에 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트리카르(Tricart)는 프랑스와 아프리카지역의 침식지형연구 프로젝트를, 바스티에(Bastie) 연구팀은 도시개발과 산업의 지방분산 프로그램을, 프리뵈노(Philipponneau)는 지역개발연구팀을 구성하여 각종 정부 프로젝트를, 그리고 마르스랭(Marcelin)은 해안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집행하면서 사회적 참여 활동을 보다 구체화했다. 그리고 수많은 지리학자들이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해 매우 적극적으로 지리학의 대중화를 펼치고 있다.

영국은 식민지 개척시대부터 지리학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1800년대 후반 정치지리학자 맥킨더 (Halford Mackinder)는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선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를 장악해야 한다는 심장부이론(heartland theory)을 주창하면서 왕립지리학회 중심에서 활발하게 사회참여 활동을 전개했다. 스탬프(Stamp)는 영국 각 지역의 토지이용도를 만들어 지역계획과 개발에 활용토록 했다. 1900년 이후 영국의 도시계획, 지역개발, 신도시 계획에 지리학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리적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1917년 레닌(Lenin)에 의해 주도된 소련 혁명 이후 지리학의 사회적 참여가 본격화되었다. 혁명의 주도 세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란스키(Baransky)는 세계 최대의 면적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학이론을 구축하고, 지리학이 실물 분야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지리학은 러시아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학문 분야 가운데 하나로 자리 매김 했으며, 지리학자의 사회참여는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 논객 크로포트킨(Kropotkin)은 프랑스 지리학자 르클뤼(Reclus)와 함께 인간과 대지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국가의 의미는 크지 않다는 무정부주의론을 펴서 사회참여운동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일구었다(권용우, 안영진, 2001).

우리나라는 조선조 세종 때 지리학자의 사회 참여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실학사상이 무르익었던 조선조 중기 이후 적지 않은 실학자들이 농촌 문제, 지역 문제 등 지리학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논리를 개진함으로써 實事求是를 표방하는 실학사상이 지리학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해석을 하게 한다. 일제시대의 경우 지리를 깊이 다루게 되면 국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이것은 곧 反日운동의 논리로 이어지는 것을 염려해 지리학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지리학은 대체로 세 단계의 시기로 나뉘어 진다. 1단계는 1945년 이후부터 1970년 전후까지의 시기로 중·고등학교 교사·대학교수를 양성하는데 주력한 지리교육이 지리학

의 대세를 이루었다. 2단계는 1970년 전후부터 2000년 전후까지의 시기로 지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세우는데 주력한 기간이다. 국내외에서 공부한 지리학자들은 지리학의 패러다임 정립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3단계는 2000년 이후의 시기로, 국내외에서 공부하여 지리학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국책 연구기관, 공공직 등에서 지리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국토, 도시, 환경 문제에 관해 논리를 펴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 서구 지리학계의 참여논쟁

미국에서는 1970년을 전후하여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자연환경에 훼손 등에 대한 반발이 사회각처에서 폭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사회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의 영향을 주어 지리학의 연구대상이나 업적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젤린스키(Zelinsky)는 물질적 축적이 반드시 진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지리학자들이 새롭게 가져야 문제의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긴스버그(Ginsberg)도 현실인식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리학자들이 현실문제를 외면하는 자세는 사회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의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내놓았다. 이러한 현실참여 논의는 아카데미 지리학으로서의 당연한 사회문제에 대해 합당한 해결이론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리학자들은 좀더 진취적으로 현실적인 사회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지리학자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인 점진론(liberalism)과 급진론(radicalism)의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사회참여문제에 있어 점진론적 접근을 표방한 그룹들은 민주적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정치 행정의 제반적 개선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들은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해 사회 문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사회 참여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참여문제에 있어 급진론적 견해를 표방한 부류들은 맑시즘과 사회주의 철학에 입

각하여 학문 역할의 근본적인 구조적 재정립을 주장하였다. 폴크(Folke)는 지리학이 매우 철학적이고 기술 지향적이긴 하나 만성적 사회문제 해결에 관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맑시즘에 입각한 연구방향의 선회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하비(Harvey)는 맑시스트적 논리에 입각한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을 주도하였다. 하비에 의하면 맑시즘 이론은 인간의 생산수단 방법에 대해 유연한 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맑시즘은 자본주의 생산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며 자본주의 체제가 지니는 불균형의 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1970년 전후의 반실증주의 운동으로 태동된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은 1970년대 기간 동안 지리학 내의 뿌리내리기 작업을 거쳐, 1980년 이후 여러 사회이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행위주체와 구조, 사회와 공간 관계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펼쳤다. 최근에는 세계적 경기침체의 심화, 냉전체제의 종식과 서구 신보수주의의 등장, 포스트 사회의 도래에 따라 '포스트주의'라고 불리는 정치경제학적 논리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은 이상의 접근방법 이외에 노동의 공간분화론, 비판이론, 구조화이론, 실재론, 조절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은 지역연구 방법론, 사회-공간이론의 정립, 도시경제지리학, 지역불균등 발전론, 신 지역지리학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은 이론 전개가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일 경우가 있으며, 정치경제학적 지리학의 논리를 가지고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칫 도시적 전개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리학의 참여논쟁은 지리학 연구방법론의 입장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까지 지리학 연구방법론의 주축을 이루어온 논리실증주의 지리학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인간주의 지리학과 구조주의 지리학은 방법론적인 면에서 실증주의와는 대별되지만, 이들 자체도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방법론은 모두 지리학적 지식의 통합체에 공헌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안들은 어떤 통일된 방법론으로 발전시키지 못했고 각각의 연구영역과 접근방법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 논쟁의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이론은 지리학자들이 사회 문제에 관해 매우 체계적인 논리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으로써 지리학자의 사회 참여를 크게 고무시켰다.

3. 프랑스 지리학자의 공공직 참여

프랑스는 근대지리학이 태동된 나라 중의 하나로 오랜 학문적 전통과 두터운 연구 인력을 보유한 나라다. 그러나 프랑스 지리학계도 배출해 내는 지리학 전공자들을 지리학계에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고용 직종만으로는 전부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지리학계는 오래 전부터 지리학 전공자들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과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여기에서는 프랑스 지리학계의 응용지리학 Commission이 1998년 1월 프랑스 상원의회 콜로키움 형식으로 진행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랑스 지리학의 정치참여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연구의 진행은 첫째로 프랑스 지리학 전공자들의 프랑스 공공직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로 직접 공공직을 수행하는 지리학자들이 소개하는 공공직 참여로의 지리학 활동영역 확대 가능성을 고찰하며, 마지막으로 지리학자이면서 시민이며 정치가의 입장을 견지하여야 하는 공공직 참여자들의 태도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연구는 전문직 지리학자들의 공공직 참여에 대한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전개한다. 아쉽게도 프랑스 지리학계에서조차도 공공직에 참여하고 있는 지리학 전공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나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년 토론되어 오는 프랑스 지리학계의 정치참여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를 소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제한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박사수료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를 '전공직 지리학자'라고 칭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같은 중앙의회 의원들과 지방자

치 단체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 당선된 정치인들을 '선출직 공직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 한 지역의 관리와 치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직(예: 지방자치단체 장)을 '의사결정자'라고 구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1) 프랑스 지리학 전공자들의 공공직 참여 실태

프랑스에서는 매년 15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우리나라 박사학위 수료에 해당하는 전문교육(M.S.T., D.E.A., D.E.S.S.)을 이수한 지리학 전공자로 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학 교육계에서 흡수하지 못한 지리학 전공자들에 대한 취업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리학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 지리학계는 1961년 제1회 스트라스부르그 콜로키움 개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프랑스 지리학술 대회의 한 세션으로 응용지리 분과를 운영하면서 '지리교육 및 전문 지리학자들의 사회전출 부문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교육계 다음으로 지리학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정치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정계에 몸담고 있거나 공공직에 종사한 경험을 지닌 지리학 전공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리학자의 정치계 진출 가능성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Trombinoscope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프랑스 전문직 지리학자 중 공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수는 약 29명이다. 이들 29명의 공공직은 17명의 국회의원, 9명의 상원의원, 3명의 현직 장관으로 집계된다. 이들은 공공직을 수행하면서 모두 지리학자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대개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다(Philipponeau, 1999).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지리학자가 교육직을 겸임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지리학자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정치인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

고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하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항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의사결정직에 해당하는 Maire¹⁾로서의 공공직 참여가 많은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회원록에 해당하는 Répertoire des géographes français(2002)에 의하면 현재 7명의 지리학자가 Maire의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중 6명이 Maire와 교수(professeur) 및 강의전담교수(maître de conférence) 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수들의 공공직 참여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Répertoire des géographes français의 기록으로 프랑스 공공직 참여 실태를 조사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²⁾ 현재 프랑스 지리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이 자료에 수록된 자료를 가지고 프랑스의 실태를 간략하게 그 경향만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프랑스 전문직 지리학자들은 정치분야로의 공공직 진출이 행정부 분야로의 진출보다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며 중앙정부의 공공직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직에로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수도권에 해당하는 일-드-프랑스 지역에서의 공공직 진출보다 지방에서의 진출이 더욱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 지방자치정부에서의 지리학자들의 정치권 참여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보여주듯이 프랑스 지리학자들의 공공직 참여범위는 여러 부문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관련 부문, 환경 및 자원 보전 관련 부문, 산업 및 상업 관련 부문, 국제적 협력과 관련된 부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Sounia씨의 경우는 특별한데 그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나라인 코트 디부아르의 지역개발 정책 분야와 환경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공공직에 입문한 후, 현재는 프랑스 정부의 국제협력관계

표 1. 프랑스 지리학 전공자의 공공직 참여 유형

	정치분야 참여			행정부 분야 참여			프로젝트 참여	기타
	지자체 의회	위원회	Maire	DATAR	국제기구	공무원		
일-드-프랑스		2	1	2	3	3	2	3
지방	2	16	6					

출처 : CNRS-UMR-PRODIG, 2002, Répertoire des géographes français, Paris 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2. 대표적인 프랑스 전공직 지리학자의 공공직 참여자들

이름	분류	공공직 진출		지리학계위치
		현직	역임	
C. Saunier		Côtes-d' Amour 상원의원, Saint-Brieuc 시장		
M. Lebranchu		중소기업 및 수공업·상업 관련 국무 장관		
R. Couderc		Béziers 시장, 중앙정부 위원회 의원, 레지옹 의원회 의원, 국회의원,	16년간 선출직 공공직 역임 - 2년 반 75000명 인구규모시의 시장 - 13년 자문위원회 의원 - 7년 레지옹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4년 국회의원	Montpellier III 대학 교수
J. Billet		중앙 및 레지옹의 경제·사회위원회 자문직		Institute de Géographie alpine 및 Joseph-Fourier-Grenoble 대학 명예교수
G. Sourmia		프랑스어권 협력 부문 국무 장관의 자문직, 기술직 자문	- 코트 디 브와르 DATAR - 코트 디 브와르 환경 및 자연 보존 장관의 기술자문 - 중앙 아프리카의 자연 및 자원 보존 연합(UICN) 관련 사업 - 프랑스어권의 UICN의 레지옹 대표 등등 역임	
R. Dugrand		Montpellier시의 도시계획관련 수석부 시장	20년간 공공직에 종사	Montpellier III 대학 명예교수
J-P, Kucheida		Liévin 시의 시장 및 국회의원		
M.L. Lanier		Val de Marne 상원위원, 일-드-프랑스 레지옹 자문위원	일-드-프랑스 레지옹 Préfet	
J.P. Danais		Fontenay-aux-Roses시 자문의원		Paris 13대학 교수
Y. Jean		Quéaux 시장		Tours 대학 강의 전담교수
S. Morin		Branne (Gironde) 시장		보르도 교수
C. Pierret		산업 국무장관, St-Dié-Vosges 부시장, 로렌 레지옹 자문위원		Saint-Dié des Vosges 국제 지리대회 창립자 겸 회장

출처 : Société de géographie, 1999, *Acta geographica*, No. hors-série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관련 공공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리학자이다. 이처럼 일부 지리학자의 경우 그들 공공직 활동의 지리적 범위가 프랑스를 넘어 프랑스 협력국가까지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의 유형에는 입각하여 정부 장관으로 활동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리를 담당하는 관리직, 정치인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지식을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해 주는 자문직 역할을 담당하는 유형이

있다. 자문직 참여 유형이 주류를 이루나 선출직에 해당하는 지자체 의원이나 Maire 직으로의 진출도 많은 수요는 아니지만 꾸준히 이루어져 프랑스 지리학자들의 공공직 참여가 일반시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교수와 Maire 직을 겸하는 지리학자 중에는 이러한 공공직 참여의 경력이 매우 오래된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일례로 G. Dorel이라는 원로 지리학자는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Maire와 대학에서의 강의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꾸준히 프랑스 전공직 지리학자들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다수의 공공직 참여자들이 공공직 참여가 지리학자로서 지리학을 완성하고 보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꾸데(R. Couderc) 교수는 적극적으로 지리학자의 공공참여를 권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는 지방개발 및 응용지리학과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7세의 나이에 정치권에 입문하여 16년 동안 4가지의 공공직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공공직을 수행함으로써 응용지리학자로서의 다양한 지식을 보완하고 풍성히 했고, 지리학자로서 사회적 활동 분야의 확대가능성을 새롭게 개발했으며,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접목시킴으로써 현장감 있고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에서 지리학자들의 공공직에로의 진출이 연령층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에서 지리학자의 공공직 참여는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는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현실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고려함없이 학문적인 성취만을 추구할 때 빠지게 되는 오류에 대해 경고한 모릴(Morill)의 논의와 더불어 우리 한국지리학계가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태도라 여겨진다.

대부분의 도시연구자들은 그들 자신을 객관적으로 도시를 연구하는데 전념하는 사회과학자로 생각한다. ... (중략)

대부분의 지리학자들처럼, 필자 역시 도시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방향에 대한 강렬한 환상을 좇아 학문의 길로 들어섰다.... (중략)

이후 수십 년간의 교수와 자문위원 생활을 통해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실상을 점차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전문가나 일반시민들에 의해 표현된 규범적인 이미지와 실제 도시의 특성 및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난 형태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권용우 외 옮김, 1997).

즉, 모릴은 인간 사회의 현상을 바탕으로 학문을 정립해 가는 사회과학인 지리학이 현실적으로 정치분야로의 참여를 통해 풍부하고 현장감있는 지식을 획득할 수 있고 이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공간질서를 이해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공간조직을

창출해 내는 것이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2) 공공직 참여로의 지리학 활동영역 확대 가능성

(1) 지리학과 정치간의 상관관계

“물론 지리학을 전공하는 것이 정치학이나 L'ENA(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정치권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것은 아니나 지리학을 배운 것이 지리적 혼합체인 요소들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정치권으로의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Philipponneau, 1999).

위의 인용구에서 보여주듯이 프랑스 지리학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리학을 전공하는 것이 공공직에 참여하는 데 매우 유리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시장이면서 상원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소니에 상원의원은 콜로키움의 Introduction을 통해 프랑스 지리학계의 공공참여에 대한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Sautier, 1999) 그는 기본적으로 영토(territory)라는 개념정립을 통해 지리학과 정치와의 연관관계를 쉽게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즉 정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권력의 행사는 지리적 공간인 '영토' 또는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와 지리학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다년간의 전쟁으로 인한 유럽 국경선의 재정비가 진행되었으며, 세계화·개방화로 인한 새로운 공간개념의 대두로 'territory'라는 정치·지리학적 단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방화의 추세와 발맞추어 'region'이라는 새로운 단위의 지역개념이 부상하고 있고 FTA 등과 같은 국제적 협약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지리적 단위가 그 중요성을 부여받고 있다. 이처럼 정치분야에서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리학의 영토에 관한 접근 방법론이 정치적 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좀더 국지적인 범위에서의 지리학과 정치간의 관련성은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선출직 의사결정자들의 일상적 업무에서 찾을 수 있다. 지자체장의

일상업무가 모두 지리적 공간상에서의 정치·행정상의 문제해결로 귀결되고 있으므로 지리학과 정치간의 관계는 더욱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바로 도시문제, 교외지역 문제, 사회적 박탈, 도시개발, 환경의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는 자연적 지역단위 및 구역 (bloc) 등 어떠한 단위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모두 지리적인 공간인 '땅(영토)'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인 지리학자들은 일상적으로 응용지리를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새로운 지리적 행정단위가 유럽 정치마당의 핵심적 논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지리학의 정치활용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기초 자치단체(코뮌)간의 협력, pays(농촌정주권), 레지옹 등이 기존의 행정단위와는 별도로 부상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지리적 단위들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공간행정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술과 개념이 필요하고, 이때 중요한 개념이 지리학적 삶의 터전을 이루는 연관성에 관한 것이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행동영역에 대한 고려가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전반의 변화 추세가 지리학자들의 공공직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권의 변화이다. 지방분권법에 의하여 선출직 정치인들의 공간개발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져감에 따라 지리학자들의 정치참여의 폭을 넓혀주고 있는 것이다(Philipponeau, 1999). 그리고 공간조정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였는데 바로 GIS이다. GIS는 향후 공간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므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간 관리 능력을 배양한 지리학자들이 정치계에서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GIS를 활용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학문의 지리학은 단지 추상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일상적 실천적인 면에서도 공간을 분석·총괄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공간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학문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넓게 열려 있다.

(2) 지리학 전공자의 공공직 진출의 유리한 조건

프랑스 지리학계가 지리학을 전공하는 것이 공직 참여에 유리하다고 보는 조건은 첫째, 종합적

과학으로서의 지리학적 성격과 현실 직접 관찰을 통한 문제인식이라는 학문적 성격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간을 다루는 지리학의 연구 풍토와 전체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총괄하는 성향을 가진 지리학적 연구 특성이 매우 유리하다. 정치적으로 공간을 다룬다는 것은 인간 삶의 터전의 모든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타 학문분야가 사회의 일부분만을 고찰하는 것과 달리, 지리학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삶의 공간과 함께 전체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지리학자는 공간의 관리자로서 매우 중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리학이 인간 환경에 대한 다양하고 폭 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오늘날 더욱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정치·공간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능력에 해당된다고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여러 전공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지리학자를 조정자(coordinator)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지리학이 여러 분야에 걸쳐 폭 넓은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각각 분절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호 이해시키고 조율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공간과 관련된 분석 작업을 진행할 경우 지리학자들이 현장 답사를 통해 관련된 경험 및 지식을 갖추고 있고, 글로벌한 분석력과 여러 분야에 걸친 폭 넓은 지식 등을 쌓은 덕분에 특정 분야에만 전문자인 행정관료들 보다 훨씬 탁월하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로 지리학적 문제 접근방법이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의 사회현상은 하나의 법칙, 하나의 개념으로 단정해서 설명할 수 없으며, 논리적 접근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때 지리학이 지닌 문제접근 방법이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Billet, 1999). 왜냐하면 지리학자는 특정 문제에 접근할 때 자연의 힘뿐 아니라 개인적 특성 및 역할에 대해서도 인식하며, 우연성(및 행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시간의 흐름의 중요성과 그 냉혹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리학자는 공간문제를 접근하는 경우 현실을 보

다 충실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셋째로 지리학의 현실분석과 미래 예측적 특성이 향후 지역의 공간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Gillardot, 1999). 지리학적 공간 구조 이론을 통해 현재의 공간을 바탕으로 미래의 공간의 문제점을 예견하고 바람직한 공간 조직과 지역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지리학자는 수많은 현장 답사의 경험으로 축적한 다양한 체험과 성공 및 실패 사례의 비교연구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지역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리는 예측이며 치유보다 예측이 낫다' 라는 속담을 생각할 때 지리학자의 공간정책 참여의 당위성이 더욱 커진다(Bastié, 1999).

넷째로 공간 인식에 대한 방법이다. 오늘날 정치적 사안으로 등장한 공간은 여러 공간적 단위에 의해 중첩되어 형성된 지리공간이다. 아직도 많은 지자체가 지역적 관념에 기초하지 않고 일상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매일 내리게 되는 국지적인 결정은 단순히 소규모의 범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범주에서 막대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으로 지역문제를 지방적(local) 단위뿐 아니라 지역적(regional) 단위, 국가적 단위, 국제적 단위에서 지리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때 지리학자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지리학은 발생한 문제를 전체적 차원에서 공간적 관점을 가지고 다룰 수 대표적인 학문분야이다. 이는 지리학자가 지도를 통한 문제로서의 접근이라는 전통적인 지리적 접근방법에 따라 공간적 단위를 달리하는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리학은 발생한 문제를 미시적 공간단위에서 문제를 인식할 뿐 아니라 거시적 공간단위에서도 문제를 접근하고 다른 지역과의 관계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리학자의 활동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도, 항공사진과 GIS에 대한 훈련과 지식 배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지리학자는 주민의 사회적 특성의 차이에 의한 행동 공간의 조직에 있어 차별성이 존재함을 이해하므로 사회적 배제가 없는 공간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일부계층에서는 극도로 소외된 계층에 속하는 그룹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반경 몇 백미터가 그들 삶의 영역 전부인 경우가 있는 반면, "jet-set"에 해당하는 호화 부유층은 전 세계가 그들 삶의 실질적 행동 영역이다(Saumier, 1999). 따라서 공간관리자는 사회적 계층에 따라 상이한 활동영역을 구성하는 것을 인지하여 사회적 특성의 차이에 의한 공간 조직의 차별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체적 시각을 가진 종합과학적 성격, 접근법적 특성, 공간단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새로운 공간 관리기술의 활용 능력 등의 지리학적 특성이 지리학 전공자들이 공공적으로 진출할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해 준다고 프랑스 지리학계는 인식하고 있다.

3) 공공적에 참여하는 지리학자의 태도

지리학은 세계의 전체성과 차이성을 동시에 설명하는 학문이고, 사회의 현재를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준비케 하는 능력을 지닌 학문이며, 모든 사회과학분야에 대해 개방적인 성격을 지닌 학문분야이다. 따라서 정치·경제적 지도자들에게 유용한 학문이라 할 수 있으나 공공분야에서의 지리학 활용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로 공간을 다루는 범위의 적절한 선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타 분야 뿐 아니라 지리학자들도 전체와의 연계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문제의 부분별 비전만을 다루는 우를 범하는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³⁾ 따라서 적절한 다층적 공간 분석 단위를 적용한 접근을 통해 분절된 공간 조직 개발이 아니라 전체 영토적 연계성내에서의 공간조직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로 지도나 그래픽의 이해와 활용에 신중해야 한다. 특정 계층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특정분야를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를 왜곡되게 표현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되며, 또한 제시된 지도나 그래픽을 정확한 관찰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특히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글로벌한 그래픽이나 지도상에서 무리한 간략화나 공간조직 도식을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Lacoste, 1999).

셋째로 정책과정에서의 민주주의적 결정방식에 대한 태도이다. '지역정책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시스템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려이다. 개인의 이익이 항상 공공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간을 분석할 능력과 미래에 대한 예견 능력을 결여한 사람들이지만 현실적 이익이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리학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바스티에 교수는 '왜 지리학과 정치적 행동이 정확한 과학이 되기를 원하는가? 왜 지리학과 정치적 행동 간의 관계가 논리적이기만을 바라는가?' 라는 질문으로 그 답을 대신하고 있다. 이는 지리학자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전문지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모릴의 권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모릴은 전공직 지리학자들이 학문적인 견해만을 내세워 현실세계의 불합리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간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⁴⁾

따라서 바스티에 교수는 공공직에 진출한 지리학자들이 실용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자신의 학문적 의견과 민주주의의 결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민주적 의사결정에 수긍하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지리학자가 모든 진실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절대로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타 학문분야의 의견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결정이나 다수 시민들의 의견에 따르는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한번 변화된 공간은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술관료가 홀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또한 잘못된 태도라고 충고하고 있다.

넷째로 지리학자들이 공공직에 참여할 때 정치권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역으로 지리학자가 과도하게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리학자들이 공공직에 참여할 때 각각의 역할에 알맞은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자는 역할이 다른 직위의 역할과 혼합하는 일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전문직 지리학자가 의사결정적의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지리학자, 도시계획가, 지역계획가, 또한 전문가, 전문의원은 의사결정자가 아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의견개진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시장이나 지자체장은 자신의 정책결정에 책임을 져야하고 재선거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 피선거인단의 요구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자는 전문직 지리학자와는 다른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럼 전문직 지리학자이면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지리학자의 경우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각자의 학자적 양심과 시민으로서의 의식, 정치가로서의 인식에 맡겨야 한다고 바스티에 교수는 정리하고 있다(Bastié, 1999).

4. 결론

지리학의 사회참여는 기원전후 지중해 연안의 지리학자들로부터 시작한다.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유럽의 지리학자들은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연구를 통해 자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국가적 국제적 영토 관리를 위해 지리학자의 사회참여를 독려해 왔고 2차 대전 이후 그 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면적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국토 관리를 위해서는 지리학자의 사회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리학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조 이후 지리학이 국가 관리의 의미 있는 분야로 자리 매김해 왔으나 일제를 거치면서 다소 침체되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국토, 도시, 환경 관리 면에서 지리학의 의미가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0년 이후 한국의 지리학자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 국회 등 정치계, 국가 고위직, 시민 환경단체 활동 등에 진출하고 있다. 향후 더욱 체계적으로 국토, 도시, 환경 분야에 관한 지리학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심화시켜 지리학의 사회참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 지리학계는 지리학의 전체적 시각, 다양한 지식함양, 접근법적 특성, 공간단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새로운 공간 관리기술의 활용 능력 등의 지리학적 특성이 지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공공직으로서의 진

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 환경, 부문별 경제개발, 관광개발, 국제정치 분야 등이 지리학자들이 매우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공공직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학계가 학술적인 분야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공공직 분야로 그 활동분야를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리학 내부적으로는 응용지리학적 지식을 발전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지리학적 전문지식을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대학에서의 지리학교육이 늦게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 저변의 확대도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지리학 전문가 집단의 형성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학자들의 활동영역이 다양하지 못했고 특히 공공직으로의 진출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1990년대를 거치면서 각종 위원회나 정부의 연구용역, 전문직 수행 등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의 공공참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 학부졸업생들의 공공직 진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지리학자의 공공직 진출이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공공직 진출을 지리학전공자들의 새로운 진로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프랑스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논의해 보자. 지리학 전공자가 공공직으로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공공직을 수행할 때 필요한 타분야의 지식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 및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지리학 내부로는 지리학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지식 습득은 계속하되 전체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반적인 지리학 지식 습득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된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공간관리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지도 및 항공사진, GIS의 활용을 더욱 발전시킬 때 한국 지리학계의 공공직 참여 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리학 전공자들의 공공직 참여가 단순히 학문적 역할로 국한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선출직 공공직이나 의사결정직 공공직으로의 참여로 확대될 때 진정으로 지리학 내외적인 역량을 배양하여 지리학의 활동영역을 현저히

확대시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직 진출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향후 공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집단의 필요와 경험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註

- 1) 시장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서 우리나라 읍, 면, 대도시의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시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 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 2) 아쉽게도 이 회원록은 학계에 종사하는 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박사 수료이상의 전문 지리학자들의 학위와 연구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계 이외에서 활동하는 지리학 전공자들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수록된 학자들도 아카데미한 활동이외의 것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서 통계에 신빙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공공직 분야의 활동을 수록한 경우에도 현재의 활동만을 그 직위로만 표시하고 있어 각각의 전공직 지리학자들의 과거의 경력을 알 수가 없어 자료활용에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3) 이러한 과오는 특정 단위를 분석단위로 한 지역개발 계획안에서 많이 나타난다. 지역적 구조만을 고려한 지역 공간 재조직은 국가 전체적 공간구조와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4) “왜 세계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도시환경과 그 환경에 직면한 우리의 삶을 조직하는 대안적인 방법들의 이익과 불이익, 그리고 비용과 편익은 어떠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의 도시와 현대적 삶을 규범적이고 선형적인 시각에서 그릇된 것으로 이를 붙여 버리는, 바로 그런 점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文獻

- 권용우, 1980, 근대지리학의 형성과정, 한울, 서울.
 권용우 · 안영진, 2001, 지리학사, 한울, 서울.
 이 찬, 1968, “한국지리학사,”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문화사대계, III, 과학기술사, 681-734.
 한국지리연구회, 1993,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서울.
 권용우 외 옮김 1997, 변화하는 대도시, 한울 아카데미, 서울 (Hart, J. F. (edit), 1991, *Our changing*

- Citie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and London)
- Bastie, J., 1999, Le géographie et le politique, *Acta geographica : Le géographie, acteur politique*, No hors-série, Société de géographie, 137-142.
- Billet, J., 1999, Le géographie et les organismes de planification régionale : conseils économiques et sociaux, régionaux, nationaux et l'Europe, *Acta geographica : Le géographie, acteur politique*, No hors-série, Société de géographie, 15-18.
- CNRS-UMR-PRODIG, 2002, *Répertoire des géographes français*, Paris.
- Couderc, R., 1999, Elu territorial et pratiques de la géographie, *Acta geographica : Le géographie, acteur politique*, No hors-série, Société de géographie, 12-13.
- Dickinson, R. E., 1969, *The Makers of Modern Geography*, Praeger.
- _____, 1976, *Regional Concept: The Anglo-American Leaders*, Routeledge & Kegan Paul.
- Gillardot, P., 1999, La graphique, outil d'aide à la décision, *Acta geographica : Le géographie, acteur politique*, No hors-série, Société de géographie, 43-45.
- James, P. E. and Martin, G. J., 1981, *All Possible Worlds: A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2nd ed., Wiley.
- Johnston, R. J., 1993, *Philosophy and Human Geography*, 2nd ed., Arnold.
- _____, 1997, *Geography and Geographers*, 5th ed., Arnold.
- Lacoste, Y., 1999, Attention aux articles de la graphique !, *Acta geographica : Le géographie, acteur politique*, No hors-série, Société de géographie, 47-48.
- Lebranchu, M., 1999, Géographie et action politique, *Acta geographica : Le géographie, acteur politique*, No hors-série, Société de géographie, 10-11.
- Philipponneau, M., 1999, Pourquoi ce colloque?, *Acta geographica : Le géographie, acteur politique*, No hors-série, Société de géographie, 5-8.
- Pierret, C., 1999, Le géographie et la politique, *Acta geographica : Le géographie, acteur politique*, No hors-série, Société de géographie, 143-145.
- Saunier, C., 1999, Introduction, *Acta geographica : Le géographie, acteur politique*, No hors-série, Société de géographie, 3-4.
- Thorez P., 1999, Géographies, élus, citoyens, *Acta geographica : Le géographie, acteur politique*, No hors-série, Société de géographie, 25-28.

최초투고일 04. 05. 04

최종접수일 04. 06. 21

지리학과 사회 참여

토론자: 황철수*

현재 국내 GIS 산업 현장에서 지리학 전공자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실증적 자료 등을 동원해 현장감 있게 발표해주신 장은미 박사님과 성효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10년전, 1995년 10월에 대한지리학회 창립 50주년 학술대회에서 오늘과 유사한 문제를 갖고 집단 토론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국내에서 GIS 분야는 어지간한 일반인까지 알만큼 일상생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군 단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부터 중앙정부, 공사, 그리고 적잖은 대기업을 비롯해 3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에서 업무상 혹은 사업상 GIS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연간 시장규모는 1,000 억원을 넘어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주제인 '지리학과 사회 참여'를 고려한다면 최근 지리학 전공자가 전공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히 취업하고 있는 분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체 GIS 시장의 인력에서 지리학 전공자의 수는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GIS 산업이 활성화된 국가의 경우 지리학 전공자가 30% 내외라는 점을 보면 인력의 구성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밝히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GIS 시장에서 지리학 전공자의 상대적 열세는 한마디로 국내 지리학계의 부적절한 대응의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내에 GIS를 가장 먼저 소개한 지리학계는 그 선점의 효과를 현장에 연계시킬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학계내부에서 GIS의 기술적 측면을 들어 지리학 범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학계의 분위기는 GIS 커리큘럼의 부실 혹은 부재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교육 사업이 1990년대 중반에 전개되었는데 당시 GIS 분야의 소위 Opinion Leader로 지리학 인사의 참여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토목공학, 컴퓨터공학, 임학 등의 학계에서는 새로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고 오늘 현재 국내에서 GIS 분야의 시장 구조는 그때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짐고 넘어가야 할 아이러니는 당시 치열하게 각축을 벌였던 대다수 학계 전문가들-물론 이들은 현재 국내 GIS 정책과 산업, 심지어 교육에 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학자들-이 거의 GIS 비전공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당시 지리학 전공자의 GIS에 대한 지식수준이었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GIS 시장이 테크놀로지 위주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 역시 GIS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공학계 열 학자들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입니다. GIS는 용어 그대로 유용한 지리적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임에도 현재 국내 GIS 분야에서는 '정보'와 '자료'도 구분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지리학계의 대응 전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리학계 내부적으로는 첫째, 지리학계의 GIS에 대한 전향적 인식을 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컴퓨터가 동원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을 비지리학적이라 치부한다면 GIS 분야에서 지리학은 현재와 같이 미약한 집단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GIS는 현대 지리학의 학문적 연구 방법론입니다. GIS 전공 교수의 확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커리큘럼의 문제입니다. 이미 국내

* 경희대학교 교수, hcs@khu.ac.kr

GIS 산업의 단편적 왜곡 현상은 앞서 지적하였고 이러한 시장 구조는 당장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적 대응 전략으로 학부과정에서는 현장 수요를 따르는 커리큘럼, 즉 테크놀로지를 강화시킨 내용으로 편성하고, 대학원과정에서 분석가 중심의 인력 배출을 목표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지리학계 한편에서 제기하고 있는 GIS 인증제도에 대한 견해입니다. 현재 국내 GIS 전공 교수의 숫자는 밝히기 부끄러울 만큼 부족합니다. GIS 전공 교수가 한 명도 없는 대학이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과 같이 어느 한 대학만으로 인증 커리큘럼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회를 중심으로 인증제를 실시하자는 대안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3-4개 대학의 교수들이 협력하여 개설 교과목을 상호 보완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놀로지 위주의 GIS 산업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배출을 위해서는 어느 한 GIS 전공 교수의 강의로는 양질의 전공자를 배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지리학 전공 학자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야 합니다. 국내 GIS 산업은 60% 정도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리학 전공자가 GIS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할 필

요가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불리한 테크놀로지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복잡한 공간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 분석과 응용을 통해 진정한 정보 산업 분야로 스펙트럼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10년 전 지리학계가 등한시해 왜곡된 시장 구조를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통해 지리학 전공자의 활로를 적극 도와야 합니다. 예컨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경영정보학은 그 성장의 핵심에 경영 활동에 필요한 효과적 의사결정지원 정보가 자리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소위 테크놀로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효율성이지만, 양질의 정보는 경영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IS는 교과서에 적혀 있듯이 궁극적으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역할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적용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지리학이 매달린 공간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잡한 공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쌓아 놓은 지리학의 수많은 모델과 이론을 테크놀로지에 적용할 때 실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리학 개론은 물리학자가 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참고 되는 GIS개론 서적 가운데 70%는 지리학자가 쓴 것입니다."

토론자: 강 영 옥*

우선 지리학대회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진 것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효현선생님께서 발표해주신 'GIS시장개척과 지리학의 가능성'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제가 평소에 느꼈던 바를 세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효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중에 'GIS라는 새로운 기술은 사회와 대학에서 지리학의 부활을 가져왔다고 믿는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부분이 과연 지리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현실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GIS가 지리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계기를 지리학자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현실은 꼭 그렇지 않는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면 현재 민간과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정보연구센터 실장, ykang@sdi.re.kr

공공부분을 통털어 GIS전문가로 활동하는 인력 가운데 지리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GIS와 관련되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지리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지리학 졸업생들 가운데 GIS를 전공한 사람의 비율 혹은 GIS를 부전공으로 하여 해당분야 취업이 가능한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즉 GIS라는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여 지리학과는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냉정하다고 판단됩니다. GIS가 지리학 부활의 기회라고는 하지만 GIS 전문직종에서 혹은 각종 위원회활동에서 지리학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토목, 도시공학, 도시계획, 조경, 전산, 정보통신분야등을 전공한 사람의 비율이 많으며, 지리학과 졸업생 가운데 GIS전공자의 수를 보아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적인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제발표한 내용에서는 지리학과내에서 제공되는 GIS과목을 보여주고 계신데 지리학과내 GIS관련과목의 개설 수 및 교육내용의 심도, 그리고 타과에서 제공되는 GIS 관련과목의 개설 수 및 교육내용의 심도등을 분석해 본다면 지리학이 GIS시장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선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즉 수요에 대응하는 커리큘럼의 작성, 교수진 확보, 졸업생 배출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GIS의 변화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어떠한 측면에서 건 교육과 연계되어야 지리학이 경쟁력을 갖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GIS는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1995년 NGIS(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과 함께 대도시지역에는 1:1,000, 우리나라 전역에 대해서는 1:5,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 GIS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의 구축과 함께 이를 활용한 도로관리시스템, 상·하수도 관리시스템등이 구축되면서 지방정부의 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GIS는 독자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정부 업무의 효

율성향상, 그리고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각 필요분야의 요소기술로 포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서도 GIS 사업이라기 보다는 g-crm, car-navigation, LBS, mobile, ubiquitous 구현등에 요소기술로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러한 동향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응한 학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지리학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지리학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대통령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각종 정보화사업에 대한 관리 및 국가 정보화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집니다. 가끔은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들에 대한 이력사항으로 전공분야를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전공이 지리학이기 때문에 지리학이라고 적지만 가끔은 지리학을 전공하면서 어떻게 이런분야의 활동을 하게되었는지 궁금하게 여기거나 아예 대외적으로 이력이 명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리학이 아니라 도시정보학이라고 고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까? 지리학을 전공한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리학은 사회과학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세부전공이 있고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리학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리학과 교수님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외활동등을 통해 홍보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GIS라는 새로운 기술은 사회와 대학에서 지리학의 부활을 가져왔다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신 성효현교수님의 발표내용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일지도 모를 몇가지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GIS가 정보화사회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정보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리학은 공간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GIS는 지리학 자체를 부활시킬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타 학문에서 GIS에 대해 노력하고 활동하고 교육하는 것을 보면 지리학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회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보면 기회라는 말보다는 위기라는 말이 더 적합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회는 위기를 극복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성효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학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리학을 전공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 박 상 규*

지리학계에는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지리학과와 커리큘럼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generalist가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춘 specialist인데, 지리학과 학생은 학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는 박사과정에 가서야 배우게 되므로 지리학과 출신 학사나 석사는 지리학과와 유사한 분야나 파생된 분야를 전공하는 도시계획, 도시공학, 환경계획, 부동산 전공 출신자들보다 현업에 진출해서 경쟁하기에는 전문성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도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야 합니다. 시대적인 변화를 미리 읽고 연구를 해나가야만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있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도시화, 환경중시, 정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러한 흐름을 앞서나가는 연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의 대외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정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흐름을 알 수 있고 관련되는 분야의 동향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사회진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학계 교수님들의 대외활동의 정도는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의과정을 보다 전문화하는 것과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외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지리학도의 사회진출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토론자: 주성재**

다른 학문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리학 발전을 위한 오늘의 특별 심포지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를 “지리학 전공자의 사회참여”라는 것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리학의 사회

참여는 지리학 전공자가 얼마나 그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리학 전공자가 사회 각계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누고, 각 경우마다 어떻게 하면 지리학 전공자들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증진시

* 건설교통부 신형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입지환경개발팀 팀장, skparks@moct.go.kr

** 경희대학교 교수, sjchoo@khu.ac.kr

킬 수 있을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리학 전공자가 고등고시, 7급, 9급 공무원시험 등을 통하여 공직에 진출하는 경우입니다. 언뜻계로 진출한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공직 진출자들이 추후 지리학에 관심을 갖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리학에 대한 연계와 애착은 그리 크지 않지만, 공직에 진출한 경우 지리학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의 사회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학부교육으로 졸업 후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지리학과 연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리학 석·박사 학위자들이 공공 연구기관에 진출한 경우, 또는 연구원 신분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넓게는 지리학 전공 교수들이 공공부문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위원회 등을 통하여 자문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리학의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리학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리학자의 문제인지는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리학자들이 기초과학으로서 지리학의 든든한 바탕위에 서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보다 실무적인 관점으로 지역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석사급에서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바로 연구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는 지리학 전공자들이 중·고등학교의 교사

로 진출하는 경우입니다. 학생들에게 지리학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보여주고 꿈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지리학 전공여부와 관계 없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학의 새로운 내용을 함께 나누고 현실 감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지속적인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과 중·고등학교 간에 다양한 협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는 지리학 전공자들이 각종 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입니다. 숫자로 보면 가장 많겠지만, 지리학과 연계는 가장 약한 그룹입니다. 물론 GIS나 유통업 등과 같은 특정분야의 예외도 있겠지만, 이들은 지리학에서 배운 일반적인 지식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각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이들 그룹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용적인 과목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숫자가 많지 않지만, 지리학 전공자가 정치계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리학에 대한 애착은 거의 없지만 한번 관심을 갖게 하면 지리학 발전에 막강한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출신대학을 통하여 이들과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리학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방안은 지리학 전공자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각 방법과 그 그룹에 따라 전략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각 그룹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커리큘럼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졸업 후 지리학지식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